

예술마을로 변한 담양 '죽이네'

대담미술관

자연속 미술관 외국인도 반했네

정희남 광주교대 교수가 지난 2010년 만든 대담미술관은 담양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사이에 위치한 대담미술관은 작품 감상이라는 미술관 자체의 기능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은 물론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스코트 화이트먼, 앤 화이트먼 주한영국대사 부부가 다녀가면서 "한국에서 가장 예쁜 미술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술관 뒤편 정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감나무 집'도 대담미술관을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옛 집을 허물지 않고 예술작품과 작은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 고즈넉한 멋과 고즈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대담미술관이 지역 작가, 향교리 마을 주민들과 손잡고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마을 곳곳에 놓여 있는 예술 작품들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시낭송, 음악회, 퍼포먼스 등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문의 061-381-0082.

남송예술창고

폐창고에서 작품 만들어 볼까

대담미술관과 도보로 5분 거리에는 담양문화재단 국제예술창작촌 사업팀이 조성하고 있는 담양 남송예술창고가 있다. 현재 '주민 수다방' 등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폐 창고시설에 예술을 입히기 시작하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붉은벽돌이 인상적인 외관과 함께 330㎡(약 100평) 규모의 창고 2동이 마주하고 있어 공간도 매우 넓적이다. 또 남송예술창고 뒤편으로는 200~300여 년생의 팽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관방제림이 펼쳐지고, 그 사이에는 담양군이 조성한 조각 공원이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달부터는 영재 멘토링 사업과 함께 집에 있는 폐품이나 고장 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남송예술창고 갤러리'가 정식 개시한다.

국제예술창작촌 총괄기획인 화가 장현우씨는 "담양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개관전은 작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전으로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문의 061-380-3488.

담양이 '컬처 빌리지'로 뜨고 있다.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죽녹원, 70만~80만 명이 찾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자연경관 속에 미술관과 갤러리, 문화센터가 잇따라 생기면서 문화마을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여건까지 더해져 주말이면 미술관과 갤러리가 시민들로 북적인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갤러리카페M, 공예미술관 보임센, 대담미술관, 남송예술창고.



공예미술관 보임센

공예품만 전시할 곳 찾는다면...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담양 대전면 쪽으로 향하다 보면 지난 4월 문을 연 공예미술관 보임센(Baumchen)을 만날 수 있다. 나무 그루터기 같은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인 보임센은 목공예를 전공한 정건용 광주대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와 목칠공예 작가인 아내 김현정 관장이 직접 만든 미술관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 공예, 종이공예 등 공예 작품 위주로 전시한다.

미술관 1, 2층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고, 미술관 옆으로는 작은 감나무를 중심으로 나무데크와 나무테이블이 놓여 있다. 또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카페도 있어 잠시 들러 쉬어갈 수도 있다. 문의 061-383-6473.

갤러리카페M

100호 작품 전시도 거뜬해요

담양IC를 지나 담양읍 쪽으로 향하다 보면 왼쪽 편에 세련된 외관의 갤러리카페M이 위치하고 있다. 미술관 옆으로는 벤치가 놓인 작은 정원이 있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하얀색 벽면과 통유리가 인상적인 공간이 펼쳐지고, 벽면을 활용해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서양화가 문경희씨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갤러리와 카페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동안 김중일 전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전경문, 김영희씨 등 작가들의 개인전과 함께 연말에는 소년소녀 가장 등 단채전 등이 진행됐다. 공간이 넓어 100호 작품을 포함해 40여 점의 작품을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다. 문의 061-381-9881.

메타펜션 소아르

이국적 펜션 앞 조각공원 거닐까

화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에 생긴 펜션 단지인 메타펜션 내에도 올 여름 갤러리가 문을 연다. 화순에서 소아르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조의현 교수가 펜션 앞 건물 2층에 작은 갤러리를 만든다. 펜션단지 내에도 조각상들이 있어 조각공원처럼 산책하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국적인 형태의 펜션과 함께 주변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고, 숙소와 음식점, 카페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

그림과 하나된 몸짓

비빔밥 그룹 등 '숨결'전...10일까지 무등갤러리



무등갤러리(관장 조은경)는 오는 10일까지 특별기획 I '숨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가 강은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씨가 주축이된 융합그룹 비빔밥팀과 이숙영(안무), 박주옥(춤), 문경미(음악)씨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전시된다. 비빔밥 그룹은 지난 2012년 광주비엔날

레를 비롯해 수많은 전시 등에서 다양한 장르와 융합 작업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서 강씨의 구름 작품을 바탕으로 콜라보한 영상작품 '숨결' 2점과 강씨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영상 작품은 한지를 캔버스에 잘게 오려 붙여 바람의 '결'을 표현한 강씨의 작품에 인간의 숨을 표현한 무용수들의 몸짓을 더해 완성됐다.

공기와 구름, 인간의 몸짓이 화폭과 영상을 오가면서 영상 숲을 만들어낸다. 관람객들에게는 작품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예술의 거리 '공동유람' 행사가 열리는 오는 5일 오후 6시에 는 작가와 안무가들이 전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236-2520. /김경인기자 kki@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한, 대, 교, 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 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KT, 중앙초교, 금남로, 계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